

흑삼·홍삼 등 우리 농산물로

'반려견 비만예방 식품' 개발

체중감소 효과... 농진청, 동애등에 유충 활용 콜레스테롤 저감 효과 식품도 만들어

반려견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 먹이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반려동물비만예방협회에 따르면 반려견 중 55.8%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으며, 국내 한 동물병원의 조사에서도 반려견의 약 40%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비만은 관절·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며 수명 단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가천대학교와 협업해 국내 생산 농산물인 흑삼과 홍삼, 동애등에 유충(애벌레) 등을 소재로 반려견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펫푸드)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흑삼과 홍삼 복합물로 만든 반려동물 식품을 반려견에게 먹였을 때 체중이 감소했다.

고열량으로 급여한 반려견 그룹 가운데 흑삼과 홍삼 복합물 식품을 급여한 그룹이 급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증가율이 8%p 낮았고, 반려견의 지방 축적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신체중실지수(BCS) 증가율도 10%p 더 낮았다. 즉 흑삼과 홍삼 복합물 식품이 체중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농진청은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유용곤충인 동애등

에 유충을 활용해 반려견에 콜레스테롤 저감 효과가 있는 식품도 개발했다.

반려견의 비만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애등에 유충을 넣은 식품을 먹인 반려견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약 10% 감소(177.6mg/dl → 159.4mg/dl)했다.

그 동안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식용곤충, 기능성 쌀 등 국내 농산물을 활용해 반려견 간 건강증진, 식이 알러지 저감 면역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 9종을 개발했으며, 5건의 특허출원과 7건의 기술이전을 달성했고, 현재 2종이 판매

되고 있다.

앞으로도 노령 반려견의 건강개선, 반려동물 항비만 및 신장질환 예방 등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 연구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수입 식품에 대응한 국내 반려동물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복 펫사료협회장은 "반려견의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만 예방 효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식품이 개발돼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능성 반려동물 식품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 개발(R&D)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성 기자

국내 최초 탄소중립

모델 구현 산단 추진

새만금청, RE100 연계

첨단제조기업 공모 마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 알이백(RE100)연계 첨단 제조기업 공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6월 중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제조기업이 새만금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업시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인접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직접 소비하는 국내 최초의 알이백(RE100)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탄소중립과 스마트그린 산단의 모델 구현을 선도할 계획이다.

접수된 사업제안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계획의 적정성, 재무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알이백(RE100) 이행계획의 적정성, 새만금개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간 투자협약과 사업협상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유호성 기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 전북 농식품 산업의 대표기업이 될 15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021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창업초기)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멘토링부터 아이디어 사업계획까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1기 발대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25일 전북 농식품 산업의 대표기업이 될 15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2021년 농식품 창업아카데미(창업초기)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와 농식품 창업활성화 및 생존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니즈와 농식품산업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창업아카데미는 농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및 기업이 발굴을 위해 창업교육, 멘토링,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디어 사업계획, 평가 등 실전교육으로 진행되며, 산업단체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참여자 전원이 창업사업계획서, R&D 계획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사업화 지원과 바이오

오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회, 공동R&D, 사업화 지원 등 바이오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2019년부터 운영된 창업아카데미가 전북의 농생명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 융합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창업활성화 및 생존 경쟁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농식품 창업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나눔축산운동 실천

전북농협, 진안 마령 오동마을서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26일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장 인근 오동마을을 방문해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나눔축산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 장경민 전북농협 부분부장, 정미경 진안군지부장 지부장 등이 참석해 마을에 철쭉 꽃잔디를 심고 청소를 함께하며 나눔축산운동을 실천했다.

(사)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농촌지역 축사 인근마을의 화장실 조성과 청소를 통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깨끗한 아름다움' 등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운동이다.

송제근 조합장은 "축산업이 사랑받기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필요성 인식 및 자발적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범세



전북농협과 무진장축협은 26일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무진장축협 양돈사업장 인근 오동마을을 방문해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나눔축산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없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을 항상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의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으로, 1% 기부·나눔 활동, 소의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종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5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서부산림청,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 캠페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6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도심속 유휴토지를 활용한 국민참여 탄소중립 숲 조성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산림조합중앙회 광주광역시 남구청,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산딸나무와 단풍나무, 철쭉 등 100여그루를 심었다.

서부청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돼 있던 유휴토지를 탄소중립 숲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됐으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암 치료 받고... 매일 생활비 받고...

'어부바실험 매월받는 암 공제' 출시

완치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 지급

암이 발병해도 생계 고민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암 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실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실험)는 지난 25일 암 완치 시까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어부바실험 매월받는 암 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암 최초 진단 이후 2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2년이 지난 후에도 암세포가 남아 있거나 동일 암 재발 전이, 신규 암 진단 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이는 최대 100세까지 2년 주기로 반복해서 보장한다.

특히 치료 효과가 우수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선택 특약으로 보장한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종양의 성장, 진행과 확산에 직접 관여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으로 기존 항암치료제와 달리 부작용이 현저히 적지만 고가의 치료 비용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

능하며, 100세까지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갱신된다.

암으로 진단받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갱신 전 공제 기간 내 공제로 납입이 면제된다. 또한, 유배당 상품으로 실험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자신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 외 ▲암 수술비 ▲암 직접치료 임원비 ▲통원비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 ▲고액임진대비용을 보장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실험중앙회 김상범 공제기획본부장은 "이 상품은 비싼 치료비용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중대질병 임에 대한 보장연금 콘셉트로,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점"이라며 "합리적인 공제로 고가의 선진항암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암 치료비용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6일 정읍시에 소재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인 (주)두손푸드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통식품 발굴 적극행정 노력"

이주현 전북조달청장, 전통식품 제조업체 방문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6일 정읍시에 소재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인 (주)두손푸드(대표 구성규)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둘러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두손푸드는 즉석조리식품을 전통 방식으로 제조·생산하는 식품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업체로, 지난 21일부터 마시는 고구마죽 등 2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통식품의 대중화를 위하여 전통식품 발굴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내 공공기관에도 지역 문화의 발전과 판로 지원을 위해 전통식품 및 전통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서부산림청 보성양묘사업소

기공식·안전기원제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 산하 보성양묘사업소가 지난 25일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갖고 새출발을 위한 첫 삽을 떴다.

보성양묘사업소는 19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부지방산림청의 각종 조립사업으로, 편백 등 어린나무를 공급하고 구실잣밤, 종가시, 황칠, 후박 등 난대산림조합의 주요 종자공급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보성양묘사업소의 낙후된 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산림청 국산목재 사용 확대정책에 따라 2층 목구조 건물로 청사를 건축할 예정이며, 양묘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계속적으로 추진 서부지역 난대산림조합의 주요 종자공급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조준규 서부청장은 "서부청은 서부지역의 중추 산림기관의 역할을 위해 각종 조립사업을 토한 목표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이들의 마음 위로·정서적 교감 계기 제공

전은 장학문화재단, 기린초서 'JB미래인재 WeRO' 실시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5일 전주기린초등학교를 찾아 'JB미래인재 WeRO(위로) We grow up together'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JB미래인재 WeRO(위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친구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전주기린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증진을 통한 교육 개선', '나를 찾아가는 레아블링 게임', '음악 감성 테라피'를 통한 놀이 등 예술 활동과 리더십활동의 접목으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지연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아 좋았다"며 "레이블링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면 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영구 이사장은 "전북은행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억압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학교에서도 따뜻한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 주세요